

## ■ 호남대·동신대·광주대 RISE사업단 업무협약

## 지역 사립대 초광역 동반성장 ‘맞손’...‘5극 3특’ 부응

광주·전남 사립대 연합체계 구축...지역 혁신 성과 공유

초광역 공동프로그램 개발·리빙랩 기반 지역 문제 해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사립대학들이 RISE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광주·전남 초광역권의 동반성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호남대·동신대·광주대 등 3개 대학 RISE사업단은 7일 오후 제주에서 ‘지역 혁신 기반의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19일 교육부 장관 주재 현장간담회에서 제시된 ‘초광역 5극 3특’ 발전 전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시 교육부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5대 초광역권(5극)과 3대 특별자치권(3특)을 중심으로 ‘인재양성-일자리-정주’ 패키지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동신대 등 3개 대학은 대학 간 장벽을 허무는 과감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각 대학 RISE사업단장 및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개 대학은 협약을 통해 △초광역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과제 발굴 △리빙랩(Living Lab) 기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기획 및 추진 △RISE사업 성과 공유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체계 구축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공유 대학’ 모델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개 대학은 각 대학이 보유한 특성과 강점을 결합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설계하는 한편, 연구 장비와 시설을 공유함으로써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3개 대학 RISE사업단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와 급변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대학의 생존은 ‘각자도생’이 아닌 ‘동반성장’에 달려 있



호남대·동신대·광주대 등 3개 대학 RISE사업단은 7일 제주에서 ‘지역 혁신 기반의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다”며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대학 간,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지역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그 성과가 지역 정주로 이어지

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개 대학은 향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

약 분야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분기별 성과 공유회를 통해 협력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김민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 대동문화재단 7대 운영이사장에 이용범 대표

“무한한 영광...메세나 가치 구현에 최선”

취임식 내달 3일 광주홀리데이인호텔서

대동문화재단 제7대 운영이사장에 이용범 ㈜프로텍 대표이사가 취임한다.

7일 (사) 대동문화재단 (대표 조상열)에 따르면 제6대 김성후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용범 ㈜프로텍 대표이사(사진)가 제7대 운영이사장으로 추대. 오는 2월 취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2년이다.

이용범 이사장은 방산업계의 대부로 ㈜프로텍, ㈜유도닉스, ㈜하이텍산업개발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굴지의 대형 방산 프로젝트를 개발 보급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파크골프협회장,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장과 대동문화재단운영이사회 부이사장, 대동문화재단 설립 3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 대동전통문화대상 운영위원장을 맡아 왕성한 메세나 활동 및 활발한 사회활동은 물론, 문화에 숭진흥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여왔다.



이용범 이사장은 수락 인사말을 통해 “대동문화재단운영이사회는 대동문화재단의 운영을 지원하는 메세나 조직으로

2007년에 창립. 오픈이온 리더들이 대거 참여해 왔으며 현재 200여 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면서 “이런 훌륭한 조직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지난 이사장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여

러 이사들과 함께 대동문화재단의 가치를 구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상열 대표이사는 “대동문화재단은 1995년 설립 이후 30년 동안 전통문화의 발전을 위해 매진해온 국내 대표적인 민간단체이다. 재단은 운영이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전통문화지킴이로써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신임 이용범 이사장님은 지역 사회 전반에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훌륭한 분이기 기대하는 바도 크다. 대동문화재단의 제7대 이사장직을 맡아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취임식은 오는 2월 3일 오후 6시, 광주홀리데이인 호텔 별관 연회장에서 열린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담양군은 최근 청사 소쇄원실에서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농업사관학교 졸업생들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 담양군, 청년 농업인 현장 소통 간담회

영농 현장 애로사항 등 현실 지원책 등 나뉨

담양군은 최근 청사 소쇄원실에서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농업사관학교 졸업생들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농업인이 영농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석한 청년 농업인들은 영농 초기 정착 과정에서 느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며 농업정책 개선 방안, 스마트팜 활

성화, 설하 무균묘의 안정적 공급, 1:1 맞춤형 컨설팅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제언과 의견을 나눴다.

정철원 군수는 “청년 농업인은 담양 농업을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자 미래 그 자체다”며 “오늘 나눈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살맛 나는 부자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성용 기자 jnwnews@

## 흥연화 광주 남구 서기관

봉사 공로 ‘대통령 표창’ 수상

흥연화 광주 남구청 서기관(사진)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7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흥연화 국장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받았다.

그는 지난 1993년 공직에 입문한 뒤 33년간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섰다.

특히 최근 10년간 민관협력 중심의 따뜻한 복지 남구 건설을 목표로, 지역복지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노력했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단체 등과 협업해 민간의 힘을 결집한 뒤 5억원에 달하는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앙정부와 광주시 주관 각종 공모를 통해 총사업비 15억원에 달하는 29건의 사업을 추진, 돌봄 이웃 5000여명에게 주된 체감도가 높은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장 중심 복지 실현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행복나눔 복지 7979센터와 복지 소외 지역 주민을 위한 이동복지관 3개소 설치, 보건복지부 통합의료 돌봄 시행 시범기관 선정 등을 추진해 복지 분야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흥연화 국장은 “주민들 모두가 촘촘한 복지 안전망 내에서 행복하고 따뜻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왼쪽)와 한국새농민중앙회 전남도회가 전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각각 성금을 기탁하며, 세대와 분야를 넘어 지역 공동체 연대의 온기를 전했다.



## 어르신·농업인 손잡고 나눔...전남 곳곳에 온기

대한노인회 1억7500만원·새농민회 300만원 기탁

전남 지역 어르신과 농업인 단체가 새해를 맞아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와 한국새농민중앙회 전남도회가 각각 성금을 기탁하며, 세대와 분야를 넘어 지역 공동체 연대의 온기를 전했다.

전남도는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1억 7500만원을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무안 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열린 2026년 신년인사회 기탁식에는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동국 사무처장, 정양수 전남 연합회장을 비롯해 22개 시군 지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성금은 전남연합회가 도내 시군

지회와 주요 경로당 등 1600곳에 ‘이웃사랑, 나누면 행복!’ 모금함을 설치해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모은 것으로, 22개 시군 저소득층 어르신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정광선 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십시일반 뜻을 모아준 어르신들의 나눔 실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금이 꼭 필요한 지역 어르신께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양수 회장은 “회원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란다”며 “앞으로 ‘어려운 노인’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국새농민중앙회 전남도회도

연말연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희망 2026 나눔캠페인’에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전남도회 임원진이 마련한 기금으로,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저소득 가정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새농민회 관계자와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이 참석했다.

김성열 전남도회장은 “농촌과 농민도 쉽지 않은 시기지만, 더 어려운 이웃과 온정을 나누자는 회원들의 뜻을 모았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과장은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나눔에 동참해 준 데 감사드린다”며 “성금이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지방보훈청은 최근 병오년 새해를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신년 참배를 진행했다.

## 광주지방보훈청, 보훈단체장 등과 신년 참배

광주지방보훈청은 최근 병오년 새해를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신년 참배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일 광주보훈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광주 보훈단체장, 광주 보훈요양원장 등 보훈 관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신년 참배는 독립운동기념탑, 현충탑 및 4·19혁명기념탑,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엄숙하게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헌화와 분향을 통해 대한민국

영령의 넋을 추모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이번 참배는 새해를 맞아 독립·호국·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보훈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 깊은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존중하는 보훈 문화 확산과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 행정 실현에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본사방문

▲윤광민 광주시교육청 공보담당관